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막막한 누군가에 작은 필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CONTENTS

- 04 01. 노령 반려동물 이해하기 (PNR)
- 06 02.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PNR)
- 09 03. 정서적 케어와 행동 변화 (PNR)
- 11 04. 개와 고양이의 인지기능 장애 판단기준 (PNR)
- 16 05. 임종 준비와 호스피스 케어 (PNR)
- 19 06. 반려동물 사후 기초 수습 방법 (강성일 장례지도사)
- 24 07. 반려동물의 등록말소 (PNR)
- 26 08. 반려동물의 장례 (PNR)
- 28 09.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FAQ (김태호 수의사)
- 38 ▣ 칼럼
‘노령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
(강성일 장례지도사)
- 46 ▣ 부록
‘월별 건강 체크리스트’ ‘응급상황 대처
- 47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개

- 들어가며 -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죽으면 진짜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돼? 좋은 곳에 묻어주면 안 돼?”

변호사로서는 법적으로 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질문 앞에서 법률적인 답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앞둔 보호자에게 법률이나 행정 절차만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 줄 안내서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나보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노화이고
어떤 질병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상하기 싫은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를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요.

가이드를 구상하면서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늘 생명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서는
노령 돌봄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려동물의 삶의 끝에서는 안락사도 떼어
놓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안내서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규정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보호자와 반려동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특정한 기준을 추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대단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막막한 누군가에게 작은
필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마지막 순간이 조금 덜 두렵고,
남겨진 마음이 조금 덜 막막해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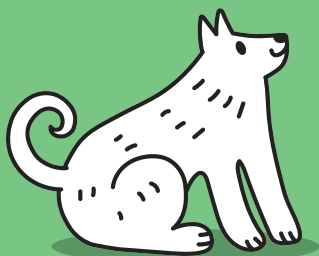
- PNR 구성원 일동 -



01

노령 반려동물 이해하기

- PNR -



노령의 기준

반려동물의 노령 시기는 견종/묘종, 체격, 유전적 배경, 기존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동물병원협회(AAHA)는 개의 ‘시니어’ 시기를 획일적인 절대 나이로 보지 않고, **예상 수명의 마지막 25%에 해당하는 시기**로 설명합니다. 반면 **고양이는 10세 이상**을 시니어로 보는 기준이 널리 사용됩니다. 실무상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더 이른 나이에 노령 관리를 시작해야 하고, 고양이는 대체로 10세 전후부터 노령이 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구 분	개	고양이
노령 시작 시기	소형(10세) / 중형(8~9세) / 대형(6~7세)	일반적으로 10세 이상부터 노령으로 분류
평균 수명	소형: 12~16년 / 중형: 10~13년 / 대형: 8~10년	12~18년 (실내 생활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노화 속도	대형견일수록 빠름 / 소형견은 비교적 느림	개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편

출처: 2023 AAHA Senior Care Guidelines for Dogs and Cats, 2021 AAFP Feline Senior Care Guidelines를 바탕으로 정리

노화의 주요 신호

중요한 것은 ‘몇 살부터 노령인가’보다 ‘**언제부터 노령기 검진과 생활 조정을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도 노령기에 접어들면 신장, 심장, 관절, 내분비계, 인지기능 등에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견상 멀쩡해 보여도 정기 검진 주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활동량 감소**: 산책이나 놀이를 금방 힘들어하거나 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수면 증가**: 낮잠이 늘고 밤낮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욕 변화**: 먹는 양이 줄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 **관절·움직임 변화**: 계단을 꺼리거나 일어설 때 뻣뻣해 보일 수 있습니다.
- **감각 저하**: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져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피모 변화**: 털 윤기가 줄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흰털이 늘 수 있습니다.
- **배변 습관 변화**: 실수가 잦아지거나 변비·설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TIP. 노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연 1회의 건강검진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을 권유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등 기본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2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 PNR -



노령기에는 ‘아프면 병원에 간다’보다 ‘**아프기 전에 변화를 발견한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반려동물은 정기적인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체중·근육량 평가,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필요 시 영상검사와 혈압 측정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와 고양이에서 흔한 질환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자주 문제되는 질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만성신장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고혈압, 관절질환을 놓치기 쉽고, 개는 심장질환, 관절질환, 내분비질환, 치과질환과 안과질환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구 분	개	고양이
관절·뼈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디스크, 골관절 종양	관절염, 척추증 (증상을 숨기는 경향이 있음)
내장 기관	심장질환, 쿠싱 증후군, 간·담낭 질환	만성 신부전(흔한 질병), 갑상선 기능항진증, 간 지방증
종양	림프종, 편평세포암종, 유선 종양, 섬유육종	림프종, 편평세포암종, 유선 종양, 섬유육종
기타	백내장, 녹내장, 안구건조증, 치주질환, 전정기관 장애, 인지기능 장애	당뇨병, 구내염, 고혈압, 변비, 인지장애

출처: 2023 AAHA Senior Care Guidelines for Dogs and Cats, 2021 AAFP Feline Senior Care Guidelines를 바탕으로 정리

정기 건강검진 필요

건강한 노령동물도 보통 6개월마다 진찰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품종, 기저질환, 증상에 따라 더 자주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본검사**: 혈액검사(CBC, 혈청화학), 소변검사, 분변검사
- **영상검사**: 흉부·복부 X-ray, 필요 시 초음파검사
- **심장검사**: 청진, 심장초음파, 혈압 측정(특히 고양이)
- **갑상선검사**: 고양이는 T4 수치 확인
- **안과검사**: 백내장, 녹내장, 안구건조증 확인
- **치과검사**: 치석, 치주질환, 구강종양 확인
- **체중·체형평가 및 근육량 평가**

예방접종과 기생충 관리

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을 자동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종 계획은 나이만이 아니라 병력, 생활환경, 질병 노출 위험에 따라 **수의사와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장사상충 예방과 내·외부 기생충 관리도 지역 환경과 생활 방식에 따라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구강관리

치주질환은 노령 반려동물에서 매우 흔합니다. **입 냄새, 침 흘림, 한쪽으로만 씹기, 딱딱한 음식 거부, 얼굴을 만지면 예민해지는 변화**가 있으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양치가 가장 기본이며, 치석이 이미 심한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나 발치 등 적극적 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가 걱정되더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치과 치료를 무조건 미루기 보다, 마취 전 검사와 전신상태 평가를 통해 위험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노령 반려동물의 스케일링 시 마취가 걱정되시나요? 사전 혈액검사와 심장검사를 통해 마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03

정서적 케어와 행동 변화

- PNR -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령 반려동물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익숙한 루틴이 무너질 때 불안이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령기 돌봄의 핵심은 ‘특별한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편안함’에 있습니다.

-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 관절과 낙상 위험을 줄여 주세요.
- 소파나 침대 옆에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두어 이동을 돕습니다.
- 화장실, 배변패드, 물그릇, 밥그릇 위치를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시력이 약해진 경우 집 안 동선의 장애물을 줄여 주세요.
- 밤중 이동이 불안해 보이면 약한 야간 조명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폭신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되, 너무 푹 꺼져 일어나기 힘든 침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놀이

노령 반려동물에게도 활동은 중요합니다. 다만 목표는 ‘예전처럼 많이’가 아니라 ‘무리 없이 꾸준히’입니다. 짧고 느긋한 산책, 냄새 맡기, 부드러운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 낮은 강도의 환경 풍부화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 자극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 중 쉽게 헛떡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돌아온 뒤 유난히 지쳐 보이면 **강도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04

개와 고양이의 인지기능 장애 판단기준

- PNR -



사람의 노화에 따르는 질병은 동물의 노화에도 따른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반려동물을 보면서 그 삶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질병에 의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지만, **변화한 반려동물의 행동은 단순 노화가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는 사람의 치매와 비슷한 뇌의 퇴행성 변화로,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11세 이상 개의 약 28%, 15세 이상 고양이의 약 50%에서 관련 행동 변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보호자의 약 88%가 이런 변화를 수의사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시기를 늦추게 되는 셈이지요.

개의 인지기능 장애 판단 기준

각 영역별 행동 변화를 0~3점으로 평가합니다.(0=없음, 1=월 1회, 2=주 1회, 3=거의 매일).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이상이 관찰될 때 인지기능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영역	관찰 항목(구체적 행동)	빈도 평가 기준
1. 방향감각 상실 Disorientation	•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멍하니 서 있음 • 가구 뒤에 끼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함 • 문의 여닫이 방향(경첩 쪽)으로 가서 기다림 • 집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배회함 • 벽이나 바닥을 응시하며 반응이 없음	0 = 전혀 없음 1 = 월 1회 정도 2 = 주 1회 정도 3 = 거의 매일
2.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Interactions	•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반기지 않음 • 쓰다듬거나 관심을 보여도 반응이 줄어들음 • 다른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달라짐(회피/공격) •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무관심해짐 • 놀이나 산책 요청에 반응하지 않음	0 = 변화 없음 1 = 약간 변화 2 = 뚜렷한 변화 3 = 심각한 변화
3. 수면-각성 주기 변화 Sleep-wake cycle	• 밤에 안절부절못하며 서성거림 • 밤중에 갑자기 짖거나 깽깽거림 • 낮에 과도하게 수면, 밤에 각성 •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짐 • 깊은 잠에서 갑자기 놀라 깨어남	0 = 전혀 없음 1 = 월 1회 정도 2 = 주 1회 정도 3 = 거의 매일

평가 영역	관찰 항목(구체적 행동)	빈도 평가 기준
4. 배변 실수 / 학습 기억 저하 House soiling	- 배변 훈련이 되어 있었으나 실내에서 실수함 - 산책 중에는 배변하지 않고 귀가 후 실수 - 배변 장소를 잊거나 혼란스러워함 - 이전에 학습한 명령어에 반응하지 않음 -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	0 = 전혀 없음 1 = 월 1회 정도 2 = 주 1회 정도 3 = 거의 매일
5. 활동 수준 변화 Activity	-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서성거림 -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무관심해짐 -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핥기/씹기 행동 증가 -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멍한 시간이 늘어남	0 = 변화 없음 1 = 약간 변화 2 = 뚜렷한 변화 3 = 심각한 변화
6. 불안 증가 Anxiety	- 보호자와 떨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함 - 이전에 괜찮았던 소리/장소에 공포 반응 - 특별한 원인 없이 떨거나 혈떡거림 - 낯선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이 어려움 - 이유 없이 짖거나 짹짹거리는 횟수 증가	0 = 전혀 없음 1 = 월 1회 정도 2 = 주 1회 정도 3 = 거의 매일

판단기준표는 다른 의학적 원인(통증, 감각 저하, 내분비 질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적용합니다.

- 경도 1~6점 - 미세한 행동 변화, 일상 기능 유지
- 중등도 7~12점 - 일상에 지장, 관리·조정 필요
- 중증 13~18점 - 기본 기능 저하, 포괄적 관리 필요

고양이의 인지기능 장애 판단 기준

고양이의 인지기능 장애 판단 기준은 개와 달리 아직 표준화된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논문으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다룬 개의 인지기능 장애 판단기준표를 응용해서 이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하세요.

평가 영역	관찰 항목(구체적 행동)	빈도 평가 기준
1. 과도한 울음 Vocalisation	•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울음 • 밤중에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냄 • 빈 방이나 벽을 향해 울음 • 이전보다 울음의 빈도와 강도가 뚜렷이 증가 • 보호자가 옆에 있어도 울음을 멈추지 않음	0= 전혀 없음 1= 월 1~2회 2= 주 1회 이상 3= 거의 매일
2. 상호작용 변화 Interactions	•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따라다님 (개와 반대 경향) • 또는 반대로 완전히 회피하고 숨음 • 다른 고양이/동물과의 관계가 변화함 • 쓰다듬기를 갑자기 거부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함 • 이전에 좋아하던 행동을 하지 않음	0= 변화 없음 1= 약간 변화 2= 뚜렷한 변화 3= 심각한 변화
3. 수면-각성 주기 변화 Sleep-wake cycle	• 밤에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울음 • 낮에 과도하게 수면, 밤에 활동 증가 • 수면 장소를 자주 바꾸거나 이상한 곳에서 잠 • 깊은 수면 후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남 • 전체적인 수면·활동 리듬이 불규칙해짐	0= 전혀 없음 1= 월 1~2회 2= 주 1회 이상 3= 거의 매일
4. 배변 실수 House soiling	• 화장실 위치를 알면서도 엉뚱한 곳에 배변 • 화장실 바로 옆이나 근처에서 실수 • 화장실에 들어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나옴 • 배변 후 모래를 덮지 않음(이전에는 덮었음) • 화장실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	0= 전혀 없음 1= 월 1~2회 2= 주 1회 이상 3= 거의 매일
5. 방향감각 상실 Disorientation	• 익숙한 집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 • 벽이나 구석을 오래 응시함 • 좁은 공간에 들어가 나오지 못함 • 갑자기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한 • 캣도어나 창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0= 전혀 없음 1= 월 1~2회 2= 주 1회 이상 3= 거의 매일
6. 활동 수준 변화 Activity	•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배회 • 이전에 즐기던 놀이나 사냥 놀이에 무관심 •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포기함(관절 문제 제외) • 반복적인 행동(한 곳을 계속 핥기 등) 증가 • 전반적으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남	0= 변화 없음 1= 약간 변화 2= 뚜렷한 변화 3= 심각한 변화

평가 영역	관찰 항목(구체적 행동)	빈도 평가 기준
7. 불안 증가 Anxiety	• 이전에 관찮았던 소리/사람에 과민 반응 • 숨는 행동이 증가하거나 은신처를 바꿈 • 혼자 남겨지면 극도의 불안(울음, 배변 실수) • 환경 변화(가구 이동 등)에 극도로 예민 • 공격성이 갑자기 나타남	0 = 전혀 없음 1 = 월 1~2회 2 = 주 1회 이상 3 = 거의 매일
8. 학습 · 기억력 저하 Learning / Memory	•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음 (청력 정상 확인 후) • 밥그릇/물그릇 위치를 잊어버린 듯한 모습 • 그루밍(자기 관리) 행동이 줄어들거나 중단됨 • 이전에 알던 일상 루틴을 따르지 않음 • 식사 직후 다시 밥을 요구함	0 = 전혀 없음 1 = 월 1~2회 2 = 주 1회 이상 3 = 거의 매일

출처: Salvin et al., 2011; Gunn-Moore et al., 2007 등 인지기능장애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구성.

※ 결과점수를 보고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05

임종 준비와 호스피스 케어

- PNR -



반려동물 삶의 질 척도 HHHHHMM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사 Dr. Alice Villalobos가 개발한 HHHHHMM 척도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각 항목을 0~10점으로 평가하는데,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에서는 0점, 5점, 10점으로 나눈 평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점 70점 중 35점 이상이면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35점 미만일 경우 수의사의 진료를** 권유합니다.

이 척도는 어디까지나 진단이 아니라 대화와 관찰을 돕는 틀입니다. 한 번의 점수보다 추세가 중요하고, 총점이 높더라도 특정 항목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	0점 기준	5점 기준	10점 기준
1. 통증 [HURT]	지속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며, 호흡이 가쁘고, 매우 힘들어한다.	기력이 저하된 상태로 간혹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이 가쁘다.	거의 통증이 없는 정상 상태이며, 호흡이 양호하다.
2. 배고픔 [HUNGER]	맛있는 것을 줘도 식욕이 없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거나 손으로 주면 어느 정도 먹는 편이다.	음식과 관계없이 식욕이 좋으며 양껏 충분히 먹는다.
3. 수분공급 [HYDRATION]	물을 거의 먹지 않아, 눈이 움푹 들어가고 소변을 거의 보지 않는다.	물먹는 양이 많지 않아 배뇨가 줄었으며, 피부 탄력이 저하되었다.	정상적으로 충분히 물을 먹고 배뇨한다.
4. 위생 [HYGIENE]	상처 부위에서 진물, 고름이 계속 나오며 냄새가 심하고, 괴로워한다.	이전보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냄새가 나는 편이다.	전신 상태가 매우 깨끗하며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5. 행복감 [HAPPINESS]	환자가 가족 등 주위 자극에 반응이 전혀 없고 구석에서 침울해한다.	주위 자극에 어느 정도 반응하고, 간혹 우울해지는 증상이 있다.	가족과 즐겁게 지내고,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며 사교적이다.
6. 운동 [MOBILITY]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며, 발작이 보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 생활에서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상 활동에 지장이 없이, 자유로이 산책하고 움직인다.
7. 기력 [MORE GOOD DAYS THAN BAD]	일주일 이상 기력이 매우 좋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3~5일 정도 기력이 좋지 않아, 힘들어 보인다.	매일 기력이 아주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호스피스 케어와 통증 관리

호스피스 케어란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돌봄 방식입니다. 수의사와 함께 통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에서의 돌봄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통증관리**: 수의사 처방 진통제를 정해진 시간에 투여하세요.
임의로 사람용 진통제를 주지 마세요.
- **편안한 환경**: 부드러운 침구, 적절한 실내 온도(22~24°C),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세요.
- **위생관리**: 배변 실수가 잦다면 방수 패드를 깔고, 피부가 젖지 않도록 자주 닦아 주세요.
- **애정표현**: 부드러운 목소리, 가벼운 쓰다듬기 등으로 안정감을 주세요.
- **가족참여**: 가능하다면 가족 모두가 돌봄에 참여하여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06

반려동물 사후 기초 수습 방법

- 본 항목의 내용은
강성일 장례지도사(한국 반려동물 장례 연구소장)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



반려동물 사후 기초 수습 방법 영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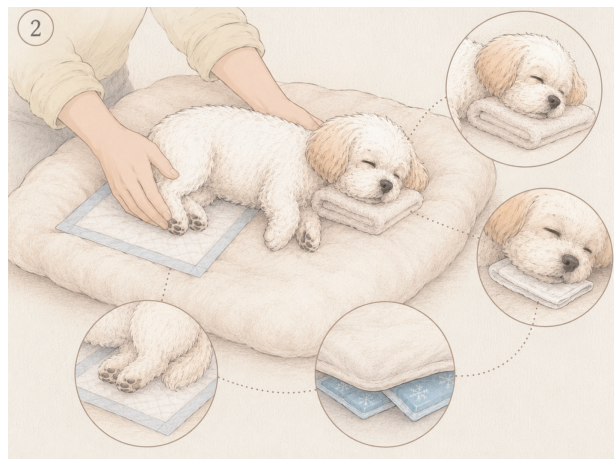
① 가장 먼저 사망확인을 해주세요.



반려동물의 호흡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장박동, 맥박, 호흡 체크를 확인합니다. 사망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자연사로 판단되면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코와 입이 말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조심히 지켜주세요.

조금 여유 있고 쿠션감 있는 담요 등을 준비해서 그 위에 반려동물을 편안히 눕혀줍니다. 수건을 두 번 정도 접어둔 상태로 머리 부분과 목 부분의 중간(경추 부위) 위치에 베개를 해주듯 조심히 받쳐주세요. 사후 상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코와 입 부분에서 혈흔 또는 체액이 역류할 수 있으며, 배뇨나 배변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얇은 타월을 이용해 배개처럼 덧 데 주고 아래쪽은 배변 패드를 덧 데어준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의 계절에는 아이스팩을 5~7시간 간격으로 바꿔주며 바닥면에 먼저 깔아준 상태로 준비 후 안치해 주시면 됩니다. 코와 입 부분의 혈흔 또는 체액은 흐르는 부분만 닦아주면 됩니다.



③ 입을 고정시켜 주세요.



반려동물의 입 부분을 살펴줍니다. 이때,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다면 혀를 입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주세요. 반려동물의 입이 벌어져 있는 만큼의 크기로 물티슈나 탈지면을 접어준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고여 준다는 느낌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시점부터 서서히 입이 열리게 되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경직(강직)이 시작되고 다시 입이 다물어지게 되면 혀를 물게 되기 때문에 경직이 시작되기 전 반려동물의 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습해 주면 됩니다.

※사후경직(강직): 사망 후 근육이 수축되면서 경추, 팔, 다리에서부터 점점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④ 눈을 감겨주세요.

반려동물의 사망 시점 이후 눈을 감지 못했다면, 눈꺼풀 위의 이마 부분 근육을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표피와 근육을 조심스럽게 쓸어 내려 줍니다. 그 다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눈꺼풀 위아래를 약 1분 정도 잡아 준 상태에서 잠시 동안 고정시켜준다는 의미로 눈을 감겨주시면 됩니다. 눈꺼풀



이 감겨져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서히 눈이 떠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을 조심스럽게 감겨주세요. 눈이 잘 감겨지지 않는 경우 안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1시간에 약 2회 정도 인공눈물을 점안시켜줍니다.

⑤ 목욕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목욕 시 반려동물의 목 부분을 조심히 감싸준 상태에서 미온수로 씻겨줍니다. 목욕이 완료된 후 털을 말려줄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시켜줍니다. 사망 시점 이후 반려동물의 상태와 사후경직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목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조심히 세척해 주고 닦아주는 방법으로 수습해 주시면 됩니다. 사망한 반려동물의 상태는 목(경추) 부분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하며 수습해야 합니다.



⑥ 조금은 기다려주세요.

반려동물의 사망 시점 이후 사후경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연해집니다. 강제로 경직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힘을 가해 마사지 또는 압박을 하게 되면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경직(강직)의 지속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⑦ 72시간을 기억해주세요.

반려동물의 사망 시점 이후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급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후 상태의 시점에서 외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 48~72시간 동안은 체외 표피의 부패나 변형은 대부분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호자 사정상의 이유로 일정시간 이내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48~72시간 이후 시점부터는 저온의 냉장 상태로 임시 안치를 해주시



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냉동 안치가 아닌 저온의 냉장 상태(영상 2~5℃)로 임시 안치를 해야 합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체내의 수분이 응고되어 안치 이후 반려동물의 본래 모습과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⑧ 끝까지 안아 주세요.

가족의 마음으로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차량 이동 중 흔들림으로 인한 2차 부상을 유의해야 하며, 이동 중에는 배변과 배뇨를 대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아래 부분을 배변 패드로 먼저 감싸주고, 그 위에 조금 여유 있는 타월을 이용해 한 번 더 감싸준 상태에서 보호자가 직접 안고 이동해 주면 됩니다. 반려동물의 목(경추) 부분을 조심히 받쳐 준 뒤, 머리 방향이 위쪽으로 향한 상태로 안아주시면 됩니다.

⑨ 마지막 배웅을 꼭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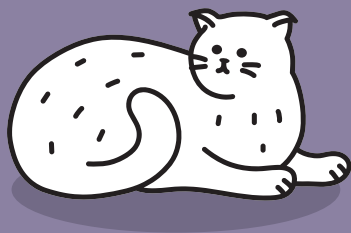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정말 가슴 아픈 애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가족이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별 예식과 배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07

반려동물의 등록말소

- PNR -



동물보호법상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방문 신고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말소는 단순한 행정 정리가 아니라 등록동물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동물등록번호, 보호자 정보, 장례 여부 등을 정리해 두고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animal.go.kr>

- | | |
|---------------------|------------------------------------|
| ①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④ ‘동물등록 말소 신고’ 사유 선택 및
관련 서류 첨부 |
| ② ‘동물등록정보 조회/변경’ 클릭 | |
| ③ 등록된 반려동물 선택 | ⑤ 제출 완료 |

오프라인(방문) 신고 방법

- | | |
|-------------------------------|-------------------------|
| ① 거주지 관할 구청/시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③ ‘동물등록 말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② 보호자 신분증과 관련 서류 지참 | ④ 말소 완료 확인 |

등록말소 시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지자체에 따라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보호자 신분증
- 동물등록번호

출처 : 동물보호법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

08

반려동물의 장례

- PNR -



반려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립(땅에 묻기)하는 것은 사유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처리(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방법은 허용되나 정서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간직하거나 봉안(납골)하는 것입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장례를 진행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동물을 함께 화장하여 유골이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 및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악취, 유해물질 배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떠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면 더 큰 상실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됨은 물론, 유골 분실이나 훼손, 일정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무허가업체의 정보 부실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례는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으로 업체를 정하기보다, **절차와 비용, 유골 반환 방식, 이동 지원 여부**를 차분히 비교해 보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www.animal.go.kr)의 ‘**영업자 >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 동물장묘업**’ 메뉴에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입력해 업체 목록과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례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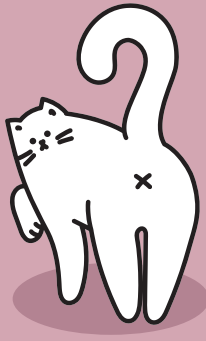
- 허가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 개별 화장 여부와 유골 반환 방식을 확인할 것
- 운영시간, 이동 지원 가능 여부, 예약 절차를 확인할 것
- 염습, 픽업, 추도 물품 등 추가 비용이 있는지 비교할 것
- 후기뿐 아니라 안내의 투명성과 응대 태도까지 함께 확인할 것

TIP. 장례업체를 급히 정하기보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를 고려해 차분히 선택하도록 합니다. 장례업체를 사전에 알아보고 미리 정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9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FAQ

- 답변은 김태호 수의사(에이드 동물병원 대표원장)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



① 반려견

문 수의학에서는 어느 연령 정도의 강아지를 노령이라고 보고 있나요?

답 개는 사람에 비하여 어릴 때는 빨리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이후에는 천천히 나이가 드는 편입니다.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서 노화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소형견에서 중형견, 대형견으로 개체크기가 커질수록 나이가 빨리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서의 노령의 나이를 60세 정도로 생각한다면, **소형견은 10살, 중형~대형견은 7~8살 정도**를 노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개 나이-사람 나이 비교표 참고)

활동 관련

문 나이가 많은 반려견의 야외 활동이나 산책은 어느 정도로 시켜주어야 적절한가요?

답 노령견의 야외 활동과 산책의 양은 반려견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척추질환이 없는 반려견이라면 30분 내외로 천천히 산책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이 괜찮더라도 노령견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강아지들은 과충분하지 않도록 호흡 상태를 체크하면서 산책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산책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음수량이 달라지나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답 반려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과 같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당뇨 등 호르몬 질병에 노출되면 음수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젊을 때와 같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도 체내에서 이용되는 수분량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노령견들은 물도 많이 먹고 오줌도 많이 쌀 수 있으므로 평소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깨끗한 식기에 신선한 물을 자주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얼음을 물에 띄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심장질환이 있는 강아지들은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질병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반려견이 나이가 많아 예전처럼 많은 거리를 걷지 못합니다.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대신해도 반려견이 산책하는 것처럼 느끼나요?

답 반려견 유모차를 이용하는 강아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견처럼 관절 문제가 있어 통증 때문에 많이 걷지 못하거나, 체력이 약해서 오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유모차 산책도 직접 보행을 하는 산책 못지않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모차 산책 시에도 잠깐씩 내려줘서 배변, 배뇨를 시켜주고 풀냄새 등을 맡게 해주는 방법들을 이용해 보시면 노령견들도 충분히 산책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문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슬개골 탈구의 위험도 올라가나요?

답 슬개골 탈구라는 질병을 가진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뒷다리 슬관절 부위의 활차구 모양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개골 탈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수술, 약물치료, 물리치료, 침 치료 등 다양한 편입니다. 노령견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 주변에 있는 슬개골을 지지해주던 인대가 느슨해진다면 슬개골 탈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더라도 비만견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잘해주시고 정기적인 산책으로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문 나이가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함께 키울 때 나이가 많은 반려견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답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노령견과 어린 반려견의 합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뒤 보호자의 눈으로 보기에 노령견이 **어린 반려견 합사 이후 보다 활력도 더 좋아 보이고, 어린 반려견과 잘 어울려 노는 것처럼 보인다면 합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사 과정에서 강아지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기존의 노령견이 불안해하고 어린 반려견의 활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합사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령견의 감정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슬프지만) **어린 반려견이 왔을 때 노령견이 이제 본인이 더 이상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필요가 없다는 감정을 느껴서 노화와 질병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음식 관련

문 반려견이 나이가 들수록 사료의 양을 줄여주어야 하나요?

답 노령견은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일일 에너지요구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의 사료를 섭취하는데 살이 찌다면 사료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측정을 자주 실시하여 체중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전문적으로는 **신체충실지수(BCS; Body condition scoring)**의 평가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견은 치과 질환, 소화력 저하 등이 발생하며 식욕 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문 나이가 든 반려견일 때에는 어떤 사료를 골라야 하나요? 사료는 계속 바꿔 주어야 하나요?

답 나이가 많다는 공통점 외의 노령견들의 건강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사료를 일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반려견은 단백질과 인산 제한식이 필요하고, 심장질환이 있는 반려견은 저염분 식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노령견은 적당한 수분섭취와 면역력 증진과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오메가3, 항산화제, 관절 보조제 등도 사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관련

문 활동량이 많이 줄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없어진 것인지 건강이 안 좋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노령견이 흔히 겪는 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호자가 어떻게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답 수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는 노령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반려견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노령견들의 질병도 많아졌습니다. 주로 노령견에게 많이 보이는 질병들은 **당뇨/부신 등의 호르몬 질병, 백내장 등의 안과 질병, 심장병, 만성 신장병, 퇴행성 관절염, 치주질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호자들은 강아지가 밥을 평소처럼 잘 먹는지,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은 없는지, 호흡이 빠르거나 기침이 심하지 않은지, 산책 시 통증을 느끼거나 다리를 저는지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강아지들의 질병을 조기에 판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령견들은 종양(암)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의 강아지가 평소와 다른 증상과 행동을 보인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노령견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견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동물이 아프거나 수술을 해야 할 때만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가벼운 증상변화도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질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병 예방 방법은 노령견의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이 원인이 되어 생길 수 있는 노령견 질병들이 많습니다. 체중에 맞는 적당량의 음식을 공급하고, 산책 등을 통하여 운동을 꾸준히 시켜 주게 되면 체중 관리와 더불어 질병 예방의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문 나이가 많은 반려견에게 치석이 많이 생겼습니다. 치석은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요?

답 노령견이 되면서 치과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노령견은 주로 치석이나 치주염 문제로 인하여 젊은 강아지들보다 딱딱한 음식을 잘 못 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캔 사료나 잘 안 씹어도 되는 음식들 위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씹어도 되는 사료를 섭취하다 보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치석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노령견은 스케일링 등 치과 질병 치료를 위한 마취시술의 위험성도 젊은 강아지에 비하여 높습니다. **주기적인 양치질을** 통해 치석이 잘 안 쌓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치과 치료를 통하여 노령견의 구강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치석이 많이 쌓인 경우에 노령견도 치아 발치를 하는 것이 반려견에게 더 좋을까요?

답 노령견의 치과 치료는 단순히 먹는 약과 구강 보조제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령견의 보호자들은 스케일링이나 발치 등의 시술 시 동반되는 전신마취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마취 전 건강 체크를 통하여 마취 후 치과 치료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석 제거를 해도 이빨 뿌리에 해당하는 치주가 이미 녹아있거나, 잇몸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치료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발치 이후에 염증과 통증이 개선되어 밥을 더 잘 먹는 환자들을 보면 **노령견의 발치 시술도 필요시에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반려견이 나이 들면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눈의 노화나 질병으로 인하여 시력이 나빠지거나, 시력이 소실되는 노령견 환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백내장 등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정체의 노령성 핵 경화 등 노화로 시력이 나빠지거나, 각막 등의 문제로 앞을 잘 못 보는 환자들에게는 보호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먹는 곳, 화장실, 휴식공간 등의 위치를 고정해 강아지가 **평소에 다니던 동선에 변화를 많이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을 잘 못 보는 강아지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호자가 말을 걸어주며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 뒤 안거나 이동시킬 때도 천천히 움직이면 강아지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개에게도 사람처럼 치매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치매가 오면 초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답 강아지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개 인지기능장애증후군 (canine 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이라는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노령견에서 행동 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보일 수 있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이 질병에 노출된 강아지들은 대표적으로 **방향감각 상실, 사회적 상호작용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집안을 어지르는 행동, 신체활동 수준의 변화** 등의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 치매에 걸린 반려견은 어떻게 돌봐 주어야 하나요?

답 치매가 있는 반려견은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치매 반려견들과 보내게 되면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 머리를 숙인 채로 원을 그리며 돌면서 걷는 아이에게는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주고, 거동이 불편한 아이에게는 욕창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폭신한 쿠션 등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대부분 식욕, 음수욕, 배변 욕구 등을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봐왔던 보호자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알아차려야 하며, 그에 알맞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산책이 어려우면 반려견 유모차 등을 통한 방법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 약물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으니 동물병원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② 반려묘

문 수의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노령묘로 보고 있나요?

답 강아지와 비교하면 품종별 체중 차이가 크지 않은 고양이에서는 보통 10세 이상의 나이를 노령묘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CatCareforLife

How old is your cat?

Life stage	Age of cat	Human equivalent age
 Kitten Birth - 6 months	0-1 month	0-1 year
	2 months	2 years
	3 months	4 years
	4 months	5 years
	5 months	6 years
	6 months	10 years
 Junior 7 months - 2 years	7 months	12 years
	12 months	15 years
	18 months	21 years
 Adult 3 - 6 years	2 years	24 years
	3 years	28 years
	4 years	32 years
	5 years	36 years
 Mature 7 - 10 years	6 years	40 years
	7 years	44 years
	8 years	48 years
	9 years	52 years
 Senior 11 - 14 years	10 years	56 years
	11 years	60 years
	12 years	64 years
	13 years	68 years
 Super Senior 15 years+	14 years	72 years
	15 years	76 years
	16 years	80 years
	17 years	84 years
	18 years	88 years
	19 years	92 years
	20 years	96 years
	21 years	100 years
	22 years	104 years
	23 years	108 years
24 years	112 years	
25 years	116 years	

CatCareforLife is brought to you by its

international cat care

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Cat Care, 고양이-사람 나이 대조표 참고]

활동 관련

문 나이가 많은 반려묘의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놀아주어야 할까요?

답 노령이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든 고양이라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묘에게 흔한

심장병이나 만성신장질환, 빈혈 등의 문제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 것일 수 있으니 건강 체크를 우선으로 해보는 것이 추천됩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크지 않다면 캣타워나 스크래처의 설치, 다양한 반려로 장난감 혹은 집안 환경의 변화를 이용한 환경 풍부화 방법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반려묘도 나이가 들면 음수량이 달라지나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답 노령묘의 대표적인 질환인 **만성신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신장의 문제로 인해 음수량보다 배뇨량이 늘어나며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성묘일 때보다 노령묘일 때 더 많은 음수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하루 권장 음수량은 고양이 체중당(kg) 40~60ml 정도**입니다. 물그릇을 집안 여기저기 배치하는 방법, 유리나 도자기 재질의 시기로 바뀌보는 방법, 흐르는 물이나 분수형 물그릇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 반려묘의 나이가 많아 요즘에는 높은 곳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절염 같은 질병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 반려묘도 나이가 들면 퇴행성관절염, 척추질환, 발톱질환 등 보행이나 점프를 하기 어려워지는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등의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관절염이 없지만 스크래처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발톱이 긴 상태로 방치되어 불편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려묘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집에서 보호자가 발톱 깎는 정도는 연습하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 나이가 많은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반려묘를 데리고 와서 함께 키울 때 나이가 많은 반려묘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답 반려묘의 합사는 반려견의 합사에 비하여 실패했을 경우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동물이므로, 합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숨어 있던 고양이의 질병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노령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린 반려묘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도 왕성하지만, 신체 능력이 떨어져 있는 노령묘는 어린 반려묘의 활동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식 관련

문 반려묘도 나이가 들수록 사료의 양을 줄여주어야 하나요?

답 노령묘도 건강상태나 비만 상태가 다르므로 사료의 양을 모두 줄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가 비만이라면 지방함량이 적은 체중 관리용 사료를 처방받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육이 약해진 고양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충분한 사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묘도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체중, 비만도, 간/신장/췌장/비뇨기 등 내부 장기의 변화에 따라 사료의 종류나 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 나이가 든 반려묘일 때에는 어떤 사료를 골라야 하나요? 사료를 계속 바꿔 주어야 할까요?
- 답** 강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령묘도 몸 상태나 질병에 따라 사료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병이 없으면 고양이용 사료 중 시니어 사료(노령묘용)**를 선택하여 급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항산화제 등의 영양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관련

- 문** 활동량이 많이 줄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없어진 것인지 건강이 안 좋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노령묘가 흔히 겪는 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호자가 어떻게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 답** 건강한 고양이들은 자기 몸을 자주 핥는 행동인 ‘그루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루밍행동을 못하여 비듬이 생기거나 털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노령묘의 몸에서는 **구취나 채취 등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노령묘의 보호자들이 고양이의 건강을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잘 올라가던 캣타워를 오르지 못하거나 점프를 잘하지 못할 때**는 관절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호흡, 구토, 설사** 등도 질병인 노령묘들에게 흔히 보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보호자가 눈치채기 가장 어려운 증상은 **식욕부진과 기력저하**입니다. 노령묘의 건강상 이상이 감지되면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질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 노령묘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노령견과 마찬가지로 노령묘들은 **1년에 2회 정도의 정기검진**이 추천됩니다. 비만인 노령묘는 체중감량만으로도 회복시킬 수 있거나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고양이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면서 배변/배뇨의 변화도 잘 판단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문** 나이가 많은 반려묘의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좋은가요?
- 답** 고양이들은 치석과 더불어 **만성치은구내염(feline chronic gingivostomatitis)**, **고양이치아 흡수성병변(feline odontoclastic resorptive lesion)**과 같은 대표적인 치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치과 질환은 치통을 일으켜 식욕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거되지 않은 치석의 세균이 혈관을 통해 심장, 신장 등으로 이동하여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령묘도 지속적인 양치질과 구강검진을 통해 적합한 치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반려묘가 나이 들면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 고양이는 거동 시 실외보다는 실내보행 위주이므로, **실내에서 부딪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력에 문제가 있는 고양이에게는 **식사 문제가 매우 중**

요합니다. 고양이는 며칠간 밥을 잘 먹지 못하면 ‘지방간증(hepatic lipidosis)’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형태로 밥을 먹여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이용이 잘되지 않으면 방광염/방광결석 등 비뇨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화장실 이용을 도와줘야 합니다(그러나, 안구적출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노령묘가 시력 저하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빈도는 적은 것 같습니다).

문 고양이에게도 치매가 오나요? 치매가 오면 초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답 고양이의 치매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수면 패턴의 변화, 방향감각의 상실, 신체활동 수준의 변화 등의 증상이 보입니다. 노령묘의 치매라고 판단되어 병원에서 진통제 등의 투약을 적절히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 변화가 치매일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 치매에 걸린 반려묘는 어떻게 돌봐 주어야 하나요?

답 치매에 걸린 반려묘의 관리 방법은 시력이 약한 반려묘의 관리 방법과 비슷합니다. 만약, 밤 늦게 치매의 증상으로 인하여 너무 소리를 지르는 등 보호자와 같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반려견·반려묘 공통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

문 사람은 사망 시 청력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답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수 있다면, 계속 말을 걸어주며 반려동물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될 때에도, 보호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라고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문 반려동물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나요?

답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기력과 혈압이 떨어져서 호흡을 어려워하거나 특정 경우에는 통증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통증이 심하면 보호자와 상의하여 수면 진정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통증 없이 보내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 문** 반려동물이 죽음을 느낄 때,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반려동물을 조용한 공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호자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 답** 보호자가 가능하다면 마지막을 앞둔 반려동물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령동물의 사망 이후 보호자들은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보호자들은 흔히 말하는 ‘펫로스 증후군’의 측면에서도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마지막까지 보호자의 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

노령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

반려동물장례지도사 _강성일



1. 프롤로그

“나의 반려동물이 죽었다. 그 아이에게 난 평생이었고, 온 우주였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관점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죽음이라는 건 여태까지 취한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반려동물은 평생 자신이 취할 수 있었던 전부가 보호자였던 것이고, 그 전부와 영영 작별하는 거라 생각해본다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럼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는 어떤 심정일까?

무척 슬프다. 많이 아프고, 정말 힘들다. 관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이미 반려동물을 떠나보냈거나, 혹은 떠나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보호자들을 매일 만나고 있다. 그렇게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른 대부분의 보호자가 한결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다.

“좀 더 잘해 줄 걸 그랬다. 그때 아프다는 신호를 몰랐던 내 자신이 밉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먹일걸.”

대부분 후회한다고 말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년을 반려동물의 평안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결국은 후회와 반성만 하는 것이다. 그럼 이분들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은 걸까? 아니다. 그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이 또한 슬퍼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반드시, 나의 반려동물과 작별하는 날을 마주하게 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거나,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왜일까? ‘반려동물’과 ‘죽음’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은 선볼리 체감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보호자를 처음 떠나 비로소 하늘에 별이 된 반려동물을 생각해 보자.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내 반려동물은 충분히 보호자의 진심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제 날 보내주는구나, 하고 편안하고도 깊은 잠에 빠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자신을 위해 앞뒤 제쳐 두고 곁을 지켜준 보호자가 자신의 온 우주라고 여기며 눈을 감는다고 말이다.

2. 반려동물의 상실과 장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의 장례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구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장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이유가 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은 하나의 고귀한 생명이고, 우리의 가족이기에 별이 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장례지도사로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상실”

반려동물의 장례가 보편화된 만큼 나의 하루에는 늘 죽음이 묻어 있다. 매일 매일을 일생을 모두 소진한 반려동물 아니, 내가 하는 일에서 호칭하고 있는 ‘아이’를 직접 견네받을 때마다 마음을 다 잡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견여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아이가 현실 세계의 바깥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끝내기 전에는 슬퍼할 수도, 안타까워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 본다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앞두었거나, 이를 대비하고 싶은 보호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아마 높은 확률로, 많은 보호자들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 애초에 생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실 나 역시 그렇다. 우리 집에도 포메라니안 남아 ‘싼쵸’라는 이름을 가진 9살이 이제 넘은 노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에게겐 세상 그 어떤 반려동물보다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래서 내 직업이 반려동물장례지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싼쵸’와의 이별을 입에 담는 것도, 이별을 상상하는 것 자체도 불편한 게 사실이다. 무의식적으로 피한다고 할까? 그럼에도 내 반려동물, 내 아이와 이별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땐 진심을 다해서 슬퍼함으로써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반려동물로 인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절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한다. ‘Pet Loss Syndrome’(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이제 많을 것이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 상실’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음으로써 얻는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피할 수 없다.”

가령 10년 넘도록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의 죽음 후 다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들이지 못하거나, 평상시 문득 떠난 반려동물과의 추억이 생각나 심적 우울감과 슬픔을 겪는 증세를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한다. 심하게는 강도 높은 우울증 증상까지 동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정말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생기는 말 그대로 ‘증후군’일까? 아니다.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우울감은 반려동물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는 물론, 평범한 하루의 일상 중에도 내 반려동물이 갑자기 떠난다는 상상만으로 불현듯 와 닿아 느껴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반려동물보다 더 긴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를 입양한 시점부터 아이의 이별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20년 가까이 한 식구로, 친구로 지내온 사이를 위해 우리는 명확히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했고 슬퍼했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사랑한 만큼 충분히 슬퍼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다 보면 화장 절차가 끝날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조차 심드렁해하는 분들을 만나곤 한다. 대부분 우리시대의 ‘아버님’들이 그렇다.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강함의 상징으로 불리는 아버지들도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유골함을 인계 받은 뒤 장례식장을 나설 때면 한쪽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거나 괜히 먼저 나가면서 울먹이곤 한다.

내 가족으로 사랑했던 세월과 소중함의 총량이 있는데 억지로 눈물을 참는다고 참아지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슬퍼하라고 준비된 공간에서 우리 동물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걸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막상 슬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것이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오열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니까. 반려동물도 분명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이다.

3. 떠나보냄의 기술 : 우리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

‘내 아이를 평생 책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저를 지탱하고 책임진 게 우리 아이, 내 반려동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만났던 보호자 대부분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호자라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보호자와 아이의 유대감에서 비롯한 본능이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을 전해주고 있다.

우리의 모두를 위한 일, ‘떠나보냄의 기술’이다. 여기서 기술이란 말은 어떠한 스킬이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일에 기술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아래에 설명하는 8가지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언젠가 소

중한 존재와 이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나보냄에 앞서 최소한의 대비책과 마음의 준비, 그리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뜻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표현하고 계시겠지만,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 하면 보호자들이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보다 걱정과 미안함을 더 많이 표현한다고 해요. 이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표현보다는, 그 동안 돌이켜만 알 수 있는 소통 방법, 이를테면 온 사인이나 암호 같은 것을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를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어 할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많이 찍어 두세요.

몇 년 전에 아이를 보낸 보호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선명했던 아이의 모습이 이제 흐릿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계시겠지만, 아이의 아픈 모습을 남기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나중엔 생전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록해 두지 않아 후회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털을 조금 모아 두세요.

보고 싶은 아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만져서 느끼는 촉감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이가 남기고 간 ‘사연’이 아닐까요?

네 번째, 오랫동안 못 본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만나게 해 주세요.

아이의 친구가 있다면 만나게 해 주시고, 평소 아이를 예뻐한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초대해서 사랑을 전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려 주세요.

다섯 번째, 버킷리스트를 준비하세요.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 보세요. 반려견이라면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이벤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수 있었지만 다음으로 미뤄서 결국은 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라도 해 보시면 아이가 떠났을 때 후회보단 추억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보세요.

막상 아이의 사망을 마주하면 경향이 없을뿐더러,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의 후회가 남아도 안 되지만, 너무 급히 장례를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아봐 두시는 게 가장 좋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라도 차분히 모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치, 운영시간, 절차 정도는 파악하고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남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 주세요.

병원이 아닌 아이가 가장 평안을 느끼고 좋아했던 장소에서 곁을 지켜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병원과 충분히 협의한 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도 보호자도 마지막은 서로만을 위해 익숙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덟 번째, 마지막을 침착하게 지켜주세요.

아이들은 보호자의 눈빛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만약 사망 시점이 임박했다면,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한 모습으로 아이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보호자를 믿고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경황없이 보내는 것만큼 후회를 남기는 건 없습니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도의 시간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긴박함으로 축소되는 걸 조심해야 해요. 한순간에 아이를 보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가 하얀 유골이 된 걸 보고 충격을 받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4. 마지막 인사와 배웅

“슬픔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슬픔은 사용되어야 한다.”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취한 보호자 중에는 이미 패닉 상태인 보호자도 있고, 이미 울 준비를 끝마친 보호자도 있다. 물론 시종 담담한 목소리로 통화를 끝내는 보호자도 있었다. 이들은 적어도 반려동물의 장례식에 대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시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억지로 끊어내는 건 오히려 가장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혹 나에게 숨을 거둔 지 이제 한 시간이 지났다면 가장 빨리 치를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한다. “아이의 평생이었던 집에 돌아가서서 가족과 함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오세요.” 라고 말이다.

“무지개다리 앞 배웅은 사실 보호자가 처음으로 겪는 과정이다.”

내 반려동물의 임종을 지켰다면 경황이 없고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급하지도 않다. 반려동물에게 평생이었던 가정에서 모두가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가족 중에 누군가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려동물 사후 기초수습을 해주어야 한다.

“그 아이에게 평생이었던 가족이다.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야 한다.”

사후 기초수습을 마무리하면 보호자와 가족에게는 장례식 전까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72시간을 할애받게 된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시간 동안은 반려동물에게 어떠한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 소중한 이 시간을 보호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온 마음을 다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때가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시간 이후부터 보호자와 가족에게 일어나게 될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슬픔을 대비할 수 있는 백신과도 같은 의미로 남을 것이다.

5. ‘Pet Loss Syndrome’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모든 죽음이 그러하듯 반려동물과의 영원한 이별 역시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고통이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는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년이 흐른 현재, 반려동물들은 어느덧 자신의 수명에 가까워졌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반려동물과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펫로스 증후군 즉,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반려동물의 죽음 뒤에 느끼는 상실감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할 경우 정상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느끼는 허탈감과 허망함이 보호자를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거나,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건 좋지 않다. 그렇다고 어떠한 마음의 준비나 극복의 시도조차 없이 급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주변인들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의 심경을 가늠하지 못한 채 행하는 위로가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방 잊힐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처럼 아직 충분히 흘리지 못한 눈물을 성급히 닦아내는 한마디는 보호자 입장에서 ‘내 슬픔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인가.’ 하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존중하고, 그곳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보호자에게 큰 위안이 된다.

“반려 가족을 위한 영원한 반려”

‘반려’한다는 것 우리말에는 동음이의어가 참 많다. ‘반려’ 역시 그렇다. ‘반려’라는 단어에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도 있지만, ‘되돌려준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반려 한다’는 말은 상반된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평생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아 반려동물이라 부르지만, 한편으로는 버리고 파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되돌려준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반려동물 가구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약 8만 2,000여 마리의 동물이 집밖에 버려지고 무책임한 관리와 학대로 인해 세상과 이별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당장 귀엽고 예쁜 생명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 해선 안 된다.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예측해서 가족으로 맞이하겠다는 결심이 필수다.** 생각지도 못한 이별이 이후의 삶을 괴롭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명적인 만남만큼 아름다운 이

별도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는 슬픔의 내색을 감추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은 홀로 먼 길을 떠났지만 보호자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보호자는 분명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 외로움조차 유난이라고 말한다.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쌓이고 쌓여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고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는 굴레에 갇히기 십상이다. 누군가 이별이 무엇이나 나에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연인 사이의 이별이나 가족의 사별 정도가 내가 경험한 이별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몇 번이고 이별을 목격한다. 그것도 다음 만남을 기억할 수도, 서로의 안녕을 빌어줄 수도 없는 이별뿐이다. 내가 해석한 반려한다는 말은 하늘로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느껴졌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물을 한평생 품 안에 두고 지내다가 다시 하늘로 돌려 보내는 것.** 그렇게 여기고 나니 반려의 상반된 두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 대체되는 것 같았다. 바로 ‘사랑’이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힘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결국 반려동물과 작별의 순간마저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영원토록 기억되고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초월한 아주 먼 미래에 내 반려동물과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지금의 슬픔이 가장 첫 번째는 아닐 것이다.

“반려동물 상실 이후”

보호자에게 남아있는 가족과 또 다른 반려동물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존재들은 여전히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먼저 떠나보낸 반려동물과 이별한 것은 보호자와 가족만이 아니다. 어쩌면 보호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감을 해 왔던 형제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형제가 사라진 것과 같다. 장례 후 달라진 집 안 공기와 환경은 남은 존재들과 반려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만은 최대한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다른 존재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다. 먼저 떠난 반려동물의 빈자리를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려면 보호자가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강해져야 한다. 실제로 보호자가 심각한 펫로스 증후군을 앓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족 구성원 또는, 혼자 남은 반려동물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남은 반려동물마저 떠나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보호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평상시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으로 돌아오는 건 어렵겠지만, 영문도 모른 채 영영 떠난 존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남은 가족과 반려동물을 반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토록 견디기 힘든 일을 언젠가 다시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먼저 떠나보낸 존재에게 미안한 마음만큼 현재의 가족들과 남은 반려동물에게 좀 더 완전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존재와의 인연에서, 인생을 총 열 개의 단계로 나뉘었을 때, 누군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곱 번째 단계에서 소중한 존재와 이별을 바라 볼 수도 있다. 물론, 사람과 반려동물은 필연적으로, 시작의 감동을 넘어 끝내 이별과 슬픔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작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별과 슬픔을 넘어 그 영원한 작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도 인간이라는 동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일 지라도 그 다른 삶에서 서서히 익숙해지고 또, 길지 않은 시간에 충분히 적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

‘언젠간 반드시 내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날은 마주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글귀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체감하거나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과정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 충격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한다. 그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 이 외래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반려동물과 이별 후에 아주 오랜 시간동안 펫로스 증후군을 겪었던 보호자는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의 상실 시점 이후, 펫로스 증후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설정되는 여러 가지의 감정 요소가 있었다. ‘미안함, 그리움, 상실감, 분노감, 현실감, 후회, 자책감’의 감정으로 심적 증후군을 시작하고 겪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미안함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펫로스 증후군의 과정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다. 보호자로, 가족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그 긴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텐데, 왜 가장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이제 우리는 그 미안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왔고, 한 생명을 위한 책임까지도 다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고 그게 현실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까지 내 반려동물을 위한 생명 존중을 다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사회적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작별을 마주하게 될 사람들이 내 반려동물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 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땐, 가장 먼저 미안한단 말보단 고마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한단 말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번 칼럼을 제안 받고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펫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남긴다. 펫로스 증후군 즉,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다. 겪지 않거나 피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건 아닐까?... 다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슬픔과 애석함이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월별 건강 체크리스트

- ☐ 체중 측정 및 기록
- ☐ 식욕과 음수량 변화 확인
- ☐ 배변·배뇨 상태 관찰(횟수, 색, 질감)
- ☐ 활동량과 보행 상태 확인
- ☐ 털과 피부 이상 여부 확인
- ☐ 눈·귀·코 분비물 확인
- ☐ 치아·잇몸 상태 확인
- ☐ 행동 변화 기록(수면, 불안, 인지 등)
- ☐ 처방 약물 투여 확인
- ☐ 기생충 예방약 투여 확인



응급 상황 대처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동물병원을 즉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호흡곤란(입을 벌리고 헐떡이거나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
- ☐ 의식 저하 또는 발작
- ☐ 갑작스러운 보행 불능(뒷다리 마비 등)
- ☐ 지속적인 구토·설사(6시간 이상) 또는 혈변·혈뇨
- ☐ 복부 팽만과 함께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 ☐ 24시간 이상 음식과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경우
- ☐ 급격한 체온 변화(저체온 또는 고열)



※ 24시간 응급 동물병원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응급 동물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냉장고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PNR은 ‘People for Non-Human Rights’의 약자로,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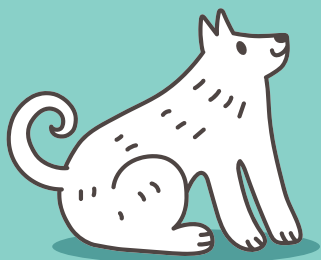
이를 위해 동물권 관련 소송 및 법안·정책 연구, 법제도 개선 제안 등 동물권리의 법적 기반을 넓히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예방적 살처분 문제 제기,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동물의 삶을 바꾸는 변화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PNR은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PNR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회원가입 QR코드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PEOPLE FOR
NON-HUMAN
RIGHTS